



5면

영화·영상산업 특화도시 도약 '탄력'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음 11월 15일) 제3413호

전북 예산 9조원 시대, 내년에도 계속

도, 내년 예산 9조163억 확보

▶▶ 관련기사 2·3면

공항 등 새만금 SOC 예산 3017억 살려 총 4513억원

특자도 원년 핵심사업 27건 1130억원, 예산에 담아서

미래 먹거리 신규사업 396건 3330억원 확보

김 지사 "도민들 한마음 노력했기에 가능" 감사



2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정기 전북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의 건전재정과 전북형 안과 직결된 사업들의 예산 삭감 기조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2년 연속 9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지속 성장 발전을 뒷받침할 예산들을 살려냈을뿐만 아니라 도와 정치권, 지자체, 도민들이 일심동체로 일궈냈다는데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주당 김윤덕·이원택·윤준병·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김정기 도의회 새만금지원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9조16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당초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는 도정이 선제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부처활동으로 부처안 반영은 순항하였으나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 사업 적정성 검토 방침에 따라 전북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로 예산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도와 정치권, 도민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내년 더욱 특별한 전북도를 견인하고 새만금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9

조원대 전북 예산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전북도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년도 주요 국가예산의 주요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새만금지역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513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국가사업의 정상화는 물론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기업 유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마련할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민생특화, 고령친화 등 5대 핵심산업의 실행 예산을 확보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육성을 위한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됐다.

모두 27건에 1,13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담였고 이는 1조1,221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과 도약의 씨앗이 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뿐 아니라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바꿔 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전북 산업생태계를 혁신할 신규 예산으로 396건에 3,330억원을 확보했다.

중장기적인 국비 확보 기반과 함께 현안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이들 사업

에는 향후 4조1,506억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 새로운 전북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지속 성장을 뒷받침 할 것을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밖에도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등 산업·경제 예산 6,632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등 농생명산업 예산 1조4,126억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 2,809억원 △안전과 환경·복지예산 4조 5,304억원 등을 확보해 역점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는 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이차전지 실시간고도분석센터',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구축' 등의 예산을 정치권과 시·군과 긴밀히 공조한 끝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는 "도민 모두가 혁신과 도약을 한마음으로 열망하고 한뜻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준 도민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며 "도정의 발전적 진화를 이뤄내 도민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단' 되다

국토부 지정... 새만금 산단 이어 네번째 사례 국비 50% 지원... 에너지 자립률 26% 달성 기대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새만금 국가산단, 대구울하 도철산단, 밀양 국가산단에 이어 네 번째 사례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 산업단지 등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1년 4월 정부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2곳(대구울하, 전주탄소)은 산단 조성시 스마트·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50%, 101억원 한도)받게 된다.

정부는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6% 감축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26% 수준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도, 해수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공모 선정

5년간 국비 포함 80억 투입 군산 갑오징어·부안 꽃게 자원 회복·어업인 소득 향상

전북도가 해양수산부 주관의 2024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에서 2개소(군산 갑오징어, 부안 꽃게)가 선정되어 국비 40억원 포함 총사업비 8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공급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회복·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생활사 특성에 맞춰 생태계 기반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다.

산란서식장은 이제까지 군산시가 2018년에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해상서식장을 조성했으나, 공모사업으로 최초 선정된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매년 16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품종별로 군산 갑오징어 40억원(매년 8억원), 부안 꽃게 40억원(매년 8억원)이다.

현재 전복을 비롯해 도내 수산자원량은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전북도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4년 2만2,000톤에서 2017년 2만톤, 2022년 1만8,000톤으로 해마다 줄어든다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번 공모 선정에 힘입어 갑오징어와 꽃게 2개 품종의 산란·서식기반 조성 및 방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원량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도가 산란서식장 최초 공모 선정이라는 쾌거를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